

# '地上天國建設'의 宗教的 意味

劉勝鍾\*

## 目次

- I. 序論
- II. 理想世界로서의 '地上天國'
- III. '地上天國'의 實現 方法
- IV. '地上天國建設'에 나타난 宗教的 特性
- V. 結論

## I. 序論

대순사상에서 '地上天國建設'은 궁극적인 목적의 하나로서, 이것을 통하여 개인과 사회의 완성을 이루는 '世界開闢'이 실천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이 나타나는 이유는 현실세계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인간의 능동적인 현실 개혁의 표현이며, 좀 더 나은 세계를 실현하고자 하는 근원적인 인간 욕구의 드러남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 역사에서 나타난 것을 보아도 이러한 변혁과 개혁의 욕구는 끊임없이 있어 왔다. 현실적인 인간의 삶에는 항상 무엇인가 결핍되고, 바뀌어져야 할 개혁의 대상이 있어 왔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변혁의 계기는 두 가지 점에서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하나는 물질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를 바라는 욕구다. 이것은 인간의 물질적인 문명의 발전을 추구하는 계기가 되어 인류 역사의 초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인류의 삶의 양태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어 왔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러한 물질적인 발전이 과학의 발전에 힘입어

---

\* 대전대학교 철학과 교수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현 시점에서 본다면, 발전의 속도가 더욱 빨라져,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예측이 어려운 정도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의 문제는 남아 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발전의 혜택이 고르지 않다는 것으로 국가간의 불균형 뿐 만 아니라, 한 국가 안에서도 역시 이러한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현실적인 변혁의 욕구가 어느 정도 인간의 삶을 현실적으로 개선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어느 면에서는 보다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계속 모든 인류에게 많은 문제점을 던져 줄 것이라 보여진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물질적인 측면에서의 변화의 계기는 또 다른 문제를 낳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변혁의 계기는 정신적인 측면에서 변화를 바라는 욕구다. 인간의 물질적인 생활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개선이 인간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키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문제를 얼마나 해결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변혁의 욕구가 크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변혁의 계기는 끊임없이 새로운 해결의 방법을 제시하게 하고, 그에 따르는 실천을 촉구한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고, 인류의 이상세계의 실현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로 보여지기도 한다. 그러나 변혁을 바라는 욕구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앞선 세대의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이상세계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인간이 이루고자 하는 이상세계는 동서를 막론하고 고대로부터 끊임없이 제시되어 왔다. 플라톤의 '이상국가'나, 기독교의 '천년 왕국', 불교의 불국토나, 유교의 대동세계 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상 세계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대순사상에서도 이러한 이상 세계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상천국건설'을 통한 '세계개벽'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제시된 이상세계는 앞에서 언급한 물질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 두 측면의 조화를 이룬 이상세계를 말한다. 그러면 대순사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상세계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지상천국건설'을 통해 살펴보고 하겠다.

## Ⅱ. 理想世界로서의 ‘地上天國’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현실세계는 모든 것이 안정되고 평화로운 세계가 아니라 유감스럽게도, 끊임없이 분쟁이 끊이지 않는 세계다. 이러한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인간의 이기심에 있다. 이러한 이기심으로부터 오는 문제들은 개인의 욕구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한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典經」에서도, “상제께서 교훈하시기를 ‘인간은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분통이 터져 큰 병에 걸리느니라’”<sup>1)</sup>고 하신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욕망은 한 개인의 마음 속에서도 일어나고, 개인과 개인, 또는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도 일어난다. 한 개인의 마음 속에서 두 가지 욕구가 대립해 있는 동안 그 사람은 행동을 결정할 수 없으며, 두 사람 또는 두 집단 사이에 욕구의 대립이 있을 경우에도 그 두 사람 또는 집단이 충돌없이 행동할 수는 없다. 한 사람의 마음 안에, 또는 두 사람 또는 두 집단 사이에 욕구의 대립이 있을 경우에도 그 두 사람 또는 집단이 충돌없이 행동할 수는 없다. 한 사람의 마음 안에, 또는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 생활 가운데서 욕구의 충돌이 생겼을 경우에 그 충돌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되어야 하거니와, 그 충돌을 가장 원만하게, 그리고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sup>2)</sup>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처하는 방안이 곧 윤리와 도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윤리나 도덕은 충돌하는 욕구를 조절하여 될수록 많은 사람들의 욕구를 조화롭게 만족시키기에 필요한 행위의 처방이다. 그러나 욕구가 충족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므로 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의 욕구를 공평하고 조화롭게 만족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윤리나 도덕은 다름 아닌 충돌하는 욕구의 가장 합리적인 방법 또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라 생각된다.<sup>3)</sup> 이러한 방법은 사회적인 체제 내에서도 찾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서로의 상충되는 갈등을 그 욕구가 일어난 마음에서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해결은 진정한

1) 教法 제 3장 24절.

2) 우종모 외, 산업사회와 윤리, 문정사, 1993, pp. 82 - 83. 참조.

3) 上揭書, p. 83.

해결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해결 방법은 자신의 욕구를 우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누르고, 타인의 입장에서 그 욕구를 서로 수용하려는 자세를 지녀야만 해결될 수 있다. 이러한 자세는 「典經」에서도, “원일이 자기 집에 상제를 모시고 성인이 도와 응패의 술을 말씀들었도다. 그것은 이러하였도다. ‘제생의세(濟生醫世)는 성인의 도요. 재민혁세(濟民革世)는 응패의 술이라. 벌써 천하가 응패가 끼친 괴로움을 받은지 오래되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상생의 도로써 화민 정세하리라. 너는 이제부터 마음을 바로 잡으라. 대인을 공부하는 자는 항상 호생의 덕을 쌓아야 하느니라. 어찌 억조 창생을 죽이고 살기를 바라는 것이 합당하리오”<sup>4)</sup>라고 하여, 천하에 폐해가 일어난 것은 ‘응패의 술’이라고 지적하여, 근본적으로 인간의 삶에서 폐해를 막는 방법은 자신의 욕망을 제거하고 타인의 삶을 올바르게 도모하는데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우리의 일은 남을 잘 되게 하는 공부이니라”<sup>5)</sup>고 말씀하신 것은 이러한 이타적인 정신을 분명하게 보여 주신 것이다. 이러한 정신의 바탕에는 상생의 의미가 들어 있다. 상생이란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차별을 없애고 함께 잘산다는 의미가 들어 있듯이, 이것은 자신의 욕심을 누르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잘되게 하려는 생각과 행동이 실천될 때 가능하다. 즉, 상생이란 이타적인 실천이 행해질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원상생에 바탕을 둔 이타적인 행위가 실천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典經」에서, “원수의 원을 풀고 그를 은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그도 덕이 되어서 복을 이루게 되나니라.”<sup>6)</sup>라는 지적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원한을 풀어 버리고, 남을 잘되게 하는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해원상생의 정신은 이타적인 행위에 의해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해원상생에는 이러한 이타사상이 내포된 특성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남을 잘되게 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상생 사상을 실천하는 태도에서 나타날 수 있다. 무엇 보다 인간의 정신계를 지배하는 사상과 종교간에 다름이

4) 教運 제1장 16절.

5) 教法 제1장 2절.

6) 教法 제1장 56절.

있을 때는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남을 함께 생각하여 같이 잘 살수 있는 도, 즉 상생의 도를 실천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 뿐만 아니라 나 자신 모두가 살아 남기 힘들게 되는 것이다. 「전경」에서,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에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고 갖가지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sup>7)</sup>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 뜻인 것이다.

이상 세계는 모든 사상과 종교가 통일된 세상이다. 이렇게 통일된 세상은 혼란된 사상과 종교를 바로 잡아야한다. 그래서 상제께서는, “선천에서는 판이 좁고 일이 간단하여 한가지 道 만을 따로 써서 난국을 능히 바로 잡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판이 넓고 일이 복잡하므로 모든 법을 합하여 쓰지 않고는 혼란을 바로 잡지 못하리라”(「전경」 예시 13절)라고 하시어 모든 법을 통합하여 혼란해진 세상을 바로 잡아 통일시키려 하셨다. 그 의미는 모든 문화의 정수를 뽑아 통일했다는 뜻으로 어느 한 편에 치우침이 없으며,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道로 통일을 이룩하셨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상제님의 뜻을 실천하는 방법으로는 많은 실천 덕목들이 있다. 그 중에 우리가 당면한 종교나 사상 간의 갈등과 다툼을 해결하고 참된 도를 펼치기 위해서 먼저 상생사상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나 혼자 만이 잘 살자는 것이 아니라 남과 함께 잘 살자는 상생의 태도야 말로 이기적인 현대 사회의 병폐를 치유할 수 있으며, 참된 도의 세계를 실천하는 길인 것이다. 상제께서도, “제생의세(濟生醫世)는 성인의 도요, 재민혁세(災民革世)는 응패의 술이라 벌써 천하가 응패가 끼친 괴로움을 받은지 오래 되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상생의 도로써 화민정세하리라. 너는 이제 부터 마음을 바로 잡으라. 대인을 공부하는 자는 항상 호생의 덕을 쌓아야 하느니라. 어찌 억조창생을 죽이고 살기를 바라는 것이 합당하리요”<sup>8)</sup>라고 말씀하시어 타인에게 해를 입히며 자기 만 잘 살기만을 바라는는 안된다는 뜻을 분명히

7) 公事 제1장 3절.

8) 敎運 제1장 16절.

가리켜 주신 것이다.

오늘날의 세계는 많은 사상과 종교가 서로 자기 주장을 하고, 서로 우월을 다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정을 상제께서는 미리 예견하셔서, “이제 동서양이 교류되어 여러가지 주의(主義)가 일고 허다한 단체가 생기나니 이것은 성숙된 가을에 오곡을 거둬 결속하는 것과 같다”<sup>9)</sup>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말씀의 의미는 동서양의 모든 사상과 종교의 진액을 모아 이루어 놓으신 대순사상의 포용성을 나타내 보이신데 있다. 현대의 사회가 많은 사상과 종교로 혼란되어 있다하더라도 그것은 표면적인 상황이고, 무지한 인간들이 참된 도를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시적인 현상이다. 일시적인 현상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참된 사실을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무지하고 상제님의 깊고 넓은 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대순 사상의 참된 도가 점차 세상에 펼쳐지면 많은 사람의 눈을 가리웠던 무지는 사라질 것이고, 참된 도의 세계에 들어와 모든 원한이 사라진 세상,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상생하는 세상, 바로 후천의 선경세계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현실은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해서 살고있는 현실의 모습이다. 현실에 대한 인식은 곧 현실에서 나타나는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밝혀내는 내는 출발점이다. 왜 인간은 안정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가, 왜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는가 하는 문제는 결국 현실에 대한 이해로부터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고, 이로부터 인간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상세계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전경에서는 이러한 원인을 원에서 찾는다. “상제께서 七월에 ‘예로부터 쌓인 원을 풀고 원에 인해서 생긴 모든 불상사를 없애고 영원한 평화를 이룩하는 공사를 행하시니라. 머리를 굽으면 몸이 움직이는 것과 같이 인류의 기록에 시작이고 원(冤)의 역사의 첫 장인 요(堯)의 아들 단주(丹朱)의 원을 풀면 그로부터 수천년 쌓인 원의 마디와 고가 풀리리라. 단주가 불초하다 하여 요가 순(舜)에게 두 딸을 주고 천하를 전하니 단주는 원을 품고 마침

9) 教法 제3장 38절.

내 순을 창오(蒼梧)에서 붕(崩)케 하고 두 왕비를 소상강(瀟湘江)에 빠져 죽게 하였도다. 이로부터 원의 뿌리가 세상에 박히고 세대의 추이에 따라 원의 종자가 퍼지고 퍼져서 이제는 천지에 가득 차서 인간이 파멸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인간을 파멸에서 건지려면 해원공사를 행하여야 되느니라'고 하셨도다"<sup>10)</sup>

이러한 지적에서 알 수 있듯이 현실 세계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데에는 그에 상응하는 원인 있게 마련이고, 또한 문제의 해결은 그 원인을 제거하는데 있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이러한 점에 입각해서 본다면, 현실 문제 발생의 원인은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그 문제의 해결은 마음에 맺힌 원을 풀어주어야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으로 해원상생의 원리가 바로 문제 해결의 단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해원상생이 이상세계 실현의 단서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을 푼다는 것이 단순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원을 풀기 위해서는 결국 마음의 修道가 전제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원을 푼다는 것은 단지 감정의 해소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로 비롯되는 것으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마음의 회복이 실현될 때 가능해지는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마음의 회복이란 인간성의 완전한 실현이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으로 일시적인 감정의 변화가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인간 자신의 근본적인 변화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서 끊임없는 노력, 즉, 修道의 결과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간단히 살펴보면, 문제의 발생 원인이 인간의 마음에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문제의 해결은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인간의 마음이 해결의 관건이 되는 것으로서, 대순사상에서 본다면, 인간 자신의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이라 할 수 있는 '道通'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도를 통한다는 것은 우주 森羅萬象의 이치를 깨닫는다는 것으로 세상의 운행되는 이치를 명확하게 인지함을 말한다. 세상의 일이란 매우 복잡하여 그 발생의 원인을 이해하고 해결하기란 힘든 일이다. 즉, 하나의 사건이 있

10) 公事 제3장 4절.

을 때,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그 근거부터 밝히고 해결점을 정확하게 제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문제로부터 고통을 받고 답답해하면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는 바로 나 자신을 돌이켜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다.”<sup>11)</sup> 이러한 지적에서 볼 수 있듯이 결국 이상세계 실현의 출발은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시작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 세상의 모든不和와 갈등이 인간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지적은, 인간 현실의 많은 문제점들의 원인을 인간 마음의 외부에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마음에 있다는 것으로, 현실 세계의 불화의 원인은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그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대순사상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극복이 실현된 세계를 ‘道通眞境’이라 하여, 이상세계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 ‘道通眞境’이란 인간이 근본적인 숙명으로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이러한 해결로부터 참된 인간의 세상을 이룬다는 것이다. 인간 자신의 근본적인 변화로부터 외부 세계의 변혁에 이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의미를 보는 각자의 견해에 따라 ‘道通眞境’이 의미하는 바가 인간의 정신적이고 내면적인 세계에 국한되는 것으로 간주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 외부의 세계의 변화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인간 내면의 세계가 변화하여 가장 이상적인 정신적 경지 도달하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개인의 변화는 곧 인간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즉, 사회의 개개의 구성원이 모두 선한 사람이 된다면, 그 사회는 악한 자가 일으키는 문제가 당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므로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이상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道通眞境’이 의미하는 세계는 인간의 정신적인 세계 뿐 만 아니라 인간의 사회를 변혁시켜 이룬 이상세계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sup>12)</sup>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인간의 이상세계의 실현은 먼저 인간 자신의 내면

11) 유승중, 도통진경의 연원과 사상적 특징, 대순사상논총, 제5집, 대순사상학술원, 1998, p. 455.

12) 上揭書, pp. 455 - 456.



세계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외부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이상세계는 서구의 기독교적인 관점과는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신 중심적인 기독교의 이상세계는 오로지 신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으로 인간의 의지와는 무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상 세계의 성취는 개개의 구성원이 자신의 내면적인 세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신적인 궁극적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인간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다. 또한 “현실 세계에 나타나는 인간의 욕망의 대상들은 대부분은 일시적이고 덧없고 허무한 것들이라는 자각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각이 없이는 인간의 정신적인 측면에 관심을 쏟기란 불가능하다. 순간적인 쾌락을 좇는 사람이 영원한 내면의 가치를 동시에 추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이 ‘道通眞境’을 이해하고 실천하는데 있어서 첫 번째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또 다른 두 번째 전제 조건은 ‘道’에 대한 참다운 이해다. 근본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道에 대한 이해는 올바른 마음 자세를 갖춘 사람이 파악해야 될 첫 번째이자 종국적인 개념이다. 만약 道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곡해되어 있다면 출발선 상에서 잘못된 목표를 향해서 서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道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삶의 항해를 시작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힘들게 올바른 목표를 찾아 도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시행착오를 되도록 줄이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자신이 목표로 삼은 그 도정에 대해 철저한 파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목표로 설정된 길을 가면서도 끊임없는 반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 성찰을 통하여 우리는 삶의 참된 목표에,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sup>13)</sup> 이렇게 실현된 세계는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완전성의 실천에 기인하는 것으로 인간 자신의 완성이자, 이상세계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상세계로서의 ‘지상천국’이 갖는 의미라고 생각된다.

결국 인간의 이상세계는 이러한 인간의 궁극적인 이상세계가 의미하는 것은 모든 문제가 마음에서 일어나고 또한 모든 문제가 마음에서 해소된다는 것이다.

---

13) 上揭書, pp. 456 - 457.

### Ⅲ. ‘地上天國建設’의 實現 方法<sup>14)</sup>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地上天國建設’은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상천국건설’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인식 주관으로서의 ‘마음’이다. 결국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먼저 대순사상에서 논의되는 ‘마음’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마음은 인식의 주체이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출발점으로서 마음의 작용에 의하여 이상세계는 실현될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어쨌든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역시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정신이나, 이성으로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면, 기존의 과학적인 세계관으로 이 세상의 진면목을 볼 수 없듯이 우리 자신의 주체에 대한 이해는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없다. 인간의 마음에 대한 논의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다양한 이해와 주장들이 제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물론적인 이해와 유심론적인 이해, 과학적인 이해와 신비적인 이해 등 그 주장들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상이한 이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마음에 대한 논의를 쉽게 하기 위해서, 앞 절에서 제기한 유기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논의를 전개하도록 하겠다.

먼저, 기존의 마음에 대한 이해를 보면, 일반적으로 서양의 영향을 받은 마음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영향에 따르는 이해는 마음의 작용을 주로 ‘理性’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것은 마음의 작용을 주로 인식적인 기능에만 치중하는 것이고, 앞에서 언급한 기존의 세계관의 영향으로 주로 실증적인 범주에 국한된 인식 기능을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동양의 전통적인 인식 방법인 ‘直觀’은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서양은 이성적이요, 합리적이라고 하는 반면에, 동양은 이와 대비되어 직관적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성적이라든가 지성적이라는 말은, “사유와 추리의 연역

14) 이 장은 논자의 논문, ‘도통진경의 연원과 사상적 특징’ 중 3장 2절 一心사상을 중심으로 구성 되었음.

으로서 실재를 파악하려는 태도를 특징으로 여긴다. 노드롭(Northrop)교수는 ‘가정에 의한 개념(concept by postulation)’이라는 어구를 만들어 서양철학자들은 ‘가정에 의한 개념’을 사용하여 철학을 한다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푸르다’라는 것을 설명할 때에 서양에서는 전자 화설에 의하여 ‘푸르다’는 말의 뜻을 일정한 파장의 수로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방법은 먼저 이 우주에 대한 어떤 가설을 설정하여 놓고 경험된 사실을 이 가설에 의하여 연역적으로 설명하려는 방법으로서 이 방법은 분명히 이성적 작용이며 과학적 방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sup>15)</sup>

이러한 서양의 과학적 입장과는 달리, 노드롭교수에 따르면, “‘직관에 의한 개념(concept by intuition)’으로서 동양철학은 수립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직관에 의한 개념’은 이 개념이 직접적으로 파악된 것으로 말미암아 그 개념의 전적 의미가 드러난다고 노드롭은 설명하고 있다. 가령 예를 들어 ‘푸르다’하는 것은 직관에 의하여 감각된 빛깔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 직관이라는 것은 어떤 육감에서 나오는 생각이 아니라 경험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감지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sup>16)</sup> 이러한 지적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동양적인 사고의 특징은, 대상을 추론적인 과정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파악하고자 하는 대상을 직접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직관은 단순히 대상을 피상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앞에서 언급한 유기체적 세계관에서 나타나는 ‘全一的’인 세계에 근거한 총체적 인식이다.

마음의 작용은 인식의 작용 뿐 만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동양에서 논의되는 마음의 특징은, 직관으로서 대상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 뿐 만 아니라, 그 이해를 바탕으로 이해된 것이 반드시 실제의 삶에서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인간의 의지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으로 인간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일의 성패가 나누어진다는 것이다.

「典經」에서도, “이제 범사에 성공이 없음은 한 마음을 가진 자가 없는 까

15) 김하태, 동서 철학의 만남, 종로서적, 1985, p. 56.

16) 上揭書, pp. 56 - 57.

닭이라. 한 마음만을 가지면 안되는 일이 없는니라. 그러므로 무슨 일을 대하던지 한 마음을 갖지 못한 것을 한할 것이로다”<sup>17)</sup>라고하여 일의 성사 여부가 인간의 마음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의 작용은 인식적이거나 의지적인 작용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마음이 집중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능력이 발휘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典經」에서, “일심의 힘이 크니라. 같은 탄알 밑에서 임낙안(林樂安)은 죽고 최면암(崔勉菴)은 살았느니라. 이것은 일심의 힘으로 인함이니라. 일심을 가진자는 한 손가락을 튕겨도 능히 만리 밖에 있는 군함을 물리치리라”<sup>18)</sup>고 한 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능력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것도 역시 과학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하면 전혀 이해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그러나 앞서서도 살펴 본 바에 따르면, 근대적인 세계관이 현대에 들어와서 비판을 받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이러한 비판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현대의 신과학 입장에서 보는 마음에 대한 이해는 데카르트적인 物心二元論의 입장을 일축하는 것으로, “물질과 정신(物心)의 구별이 없고 마음과 몸(心身)의 차이도 없다. 모두가 하나로 말려들어가 녹아들어 있다. 이것을 제일의적인 실재라고 하는 일은 지금까지의 물심이원론에 대한 도전이며 심신론(心身論)에 새로운 시야를 여는 일이기도 하다. 데카르트 이래로 서구에서는 마음과 몸(물질)은 별개의 다른 실체로 여겨져 왔다. 마음과 몸은 서로 분리 되어 존재하지만 어떤 상호 작용에 의해 관계지어져 있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봄에 의하면 이 같은 견해는 ‘숨겨진 질서’의 이론과 양립되지 않는다. ‘숨겨진 질서는 마음과 물질 일반을 말아 넣고 있다. 무엇보다도 몸을 말아 넣고 있다고 해야 하겠다. 마찬가지로 몸은 마음 뿐 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물질적 우주 하나 하나를 말아 넣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몸과

17) 教法 제2장 5절.

18) 教法 제3장 20절.

마음은 더욱 광대한 하나의 아총체(亞總體)의 인자(因子)라고 불러야 마땅하며, 이 아총체가 심신 쌍방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sup>19)</sup>고 한다.

이러한 입장은 기존의 이해와는 상당히 다른 것으로 인간의 마음을 물질적인 것과 동일시하는 하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여기서 언급하는 물질과 마음을 동일시한다는 것은 유물론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 주장은 물질과 정신의 구분이 없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존의 과학적인 입장에서 보는 물질의 개념에 근거한 동일시가 아니라는 것이고, 새로운 세계관에 기초한 심신일원론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잘 보여 주는 것이 몸과 마음이 모두 동일한 에너지체라는 주장이다.

“신과학 기술이 밝혀내고 있는 바와 같이 모든 것이 에너지체라면, 당연히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 볼 수 있다. 즉, 마음으로 모든 물질이나 물체를 다룰 수 있어야 하지 않는가 하고 말이다. 몸과 마음이 다 같은 에너지체이므로 마음먹은 대로 몸이 변한다는 생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위의 모든 물체를 역시 마음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러한 예를 우리는 초능력자들에게서만 보아왔다. 초능력자들이 보여주는 놀라운 능력 가운데는 의심하기 좋아하는 기자들마저 결코 속임수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밀봉한 유리병 속에 물체를 집어 넣거나 그 안의 물체를 밖으로 꺼내는 일이다. 이와같이 과학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초능력을 구사하는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물체는 물질이며 때에 따라서는 생각의 힘만으로도 물질의 에너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례이다”<sup>20)</sup> 이것은 기존의 물질의 최소 단위를 원자와 같은 존재로 파악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또 다른 실례는 물체를 마음으로 제어하는 기술이다. 이것은 시드니 공과대학교의 크레이그 (Ashley Craig) 교수가 개발한 이 기술은 사람의 머리에서 방사되는 뇌파를 이용한 것으로, 10여 년을 연구한 끝에 개발에 성공한 이 장치의 이름은 ‘마음으로 작동되는 스위치(mind switch)’로 마음 속으로 생각할 때 나타나는 뇌파 신호를 이용한다는 것이 특이하다.<sup>21)</sup> 이러한 기

19) 마루야마 도시야끼, 박희준 역, 氣란 무엇인가, 정신세계사, 1989, pp. 246 - 247.

20) 방건웅, 上揭書, p. 299.

21) 上揭書, pp. 298 - 299.

술은 사람과 기계에 연결된 선에 의해 전달되는 것이지만, 이와는 달리 전혀 연결된 매개체 없이 마음의 작용으로만 기계의 작동에 영향을 주는 실례가 있다. 이러한 실험을 하는 곳은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로 여기서는 텔레파시나 마음과 기계의 상호작용 등과 같은 현상을 실제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나타난 흥미로운 사실은,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이 실험과정에서 기계를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와 하나가 된 듯하다는, 즉 기계와 공명을 일으켰음을 시사하고 있는데, 그 경험담이 꼭 선(禪)을 하다가 삼매경에 든 것 같았다는 것이다. 실험 참여자는 그의 소감을 이렇게 밝히고 있다. ‘그 과정에 몰두하다 보니, 마치 게임이나 독서, 무대 공연이나 어떤 창조적인 일에 빠져 있을 때처럼 나 자신과 주위에 대한 의식이 없어졌습니다. 그 장치를 내가 직접 조종하고 있다는 느낌은 거의 들지 않았고, 나와 기계가 공명 상태가 되면서 내가 가하는 영향력은 아주 희박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카누를 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때에는 그 흐름에 몸을 맡겼고, 엉뚱한 방향으로 갈 때에는 그 흐름을 돌려서 다시 공명 상태로 돌아 오도록 했습니다.’ 22)

이러한 경험담은 마치 동양에서 말하는 ‘物我一致’를 표현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점은 정신과 물질을 이원론적으로 파악하는 서양의 과학적인 입장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면 이러한 현대의 해석에 근거하여 「典經」에 나타난 경우들을 생각해 보자

「典經」에서, “상제께서 정미년 가을 어느 날 신원일과 박공우와 그 외 몇 사람을 데리고 태인 살포정 주막에 오셔서 쉬시는데 갑자기 우뢰와 번개가 크게 일어나 집에 범하려 하기에 상제께서 번개와 우뢰가 일어나는 쪽을 향하여 꾸짖으시니 곧 멈추는지라. 이 때 공우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번개를 부르시며 또 때로는 꾸짖어 물리치기도 하시니 천지조화를 마음대로 하시는 상제시라.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분을 쫓을 것이라고 마음에 굳게 다짐하였더니 어느 날 공우에게 말씀하시기를 ‘만날 사람 만났으니’라는 가사를 아느냐 하시고 ‘이제부터 네가 때마다 하는 식고(食告)를 나에게 돌리라’하시

22) 上揭書, pp. 300 - 301. 참조.

니 공우가 감탄하여 여쭙기를 ‘평생의 소원이야. 깨달았나이다.’ 원래 공우는 동학신도들의 식고와는 달리 ‘하느님 뵈오지소서’라는 발원의 식고를 하였는데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남의 심경을 통찰하심이여 조화를 임의로 행하심을 볼 때 하느님의 강림이시라고 상제를 지성으로 받들기를 결심하였도다”<sup>23)</sup>라는 언급과 “상제께서 기유(己酉)년에 들어서 매화(埋火) 공사를 행하고 사십 구일간 동남풍을 불게 하실 때 사십 팔일 되는 날 어느 사람이 찾아와서 병을 치료하여 주실 것을 애원하기에 상제께서 공사에 전념하는 중임으로 응하지 아니 하였더니 그 사람이 돌아가서 원망하였도다. 이로부터 동남풍이 멈추므로 상제께서 깨닫고 곧 사람을 보내어 병자를 위안케 하시니라. 이 때 상제께서 ‘한 사람이 원한을 품어도 천지기운이 막힌다’고 말씀하셨도다”<sup>24)</sup>라는 언급은 마음의 작용이 천지자연에 두루 작용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 즉, 이것은 인간의 마음이 단지 사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典經』의 이러한 내용은 종래의 세계관에서는, 그리고 인간의 마음에 대한 데카르트식의 이원론적인 입장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러한 것에 대해 신비한 현상으로만 간주하거나, 알 수 없는 것으로 단순히 무시해 버리는 경향이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신과학의 주장들을 받아들일 때 가능하게 된다. 즉, 정신과 물질의 상호 영향에 의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입장을 수용할 때 이해 가능한 현상이 되는 것이다.

『典經』에는 이러한 내용 뿐 만 아니라 마음의 작용에 대한 또 다른 부분들이 나타난다. 즉, “하루는 경석에게 가라사대 ‘갑오년 겨울에 너의 집에서 삼인이 동맹한 일이 있느냐’고 물으시니 그렇다고 대답하니라. 상제께서 ‘그 일을 어느 모해자가 밀고하므로써 너의 부친이 해를 입었느냐’고 하시니 경석이 낙루하며 ‘그렇소이다’고 대답하니라. 또 가라사대 ‘너의 형제가 음해자에게 복수코자 함은 사람의 정으로는 당연한 일이나 너의 부친은 이것을 크게 근심하여 나에게 고하니 너희들은 마음을 돌리라. 이제 해원 시

23) 教運 제1장 25절.

24) 公事 제3장 29절.

대를 당하여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하나니 만일 너희들이 이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후천에 또 다시 악의 씨를 뿌리게 되니 나를 좇으려거든 잘 생각하여라'하시니라. 경석이 세 아우와 함께 옆방에 모여 서로 원심을 풀기로 정하고 상제께 고하니 상제께서 '그러면 뜰 밑에 짚을 펴고 청수 한 동이를 떠다 놓은 후 그 청수를 향하여 너의 부친을 대한 듯이 마음을 돌렸음을 고백하라'하시니 경석의 네 형제가 명을 좇아 행하는데 갑자기 설움이 복바쳐 방성 대곡하니라. 이것을 보시고 상제께서 '너의 부친은 너희들이 슬피 우는 것을 괴로와하니 그만 울음을 그치라'이르시니라. 그후에 '천고춘추 아방궁 만방일월 동작대(千古春秋阿房宮 萬方日月銅雀臺)'란 글을 써서 벽에 붙이시며 경석으로 하여금 항상 마음에 두게 하셨도다."<sup>25)</sup> 등의 언급은 현실적인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구체적인 문제들이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해소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불교에서도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마음의 작용을 말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실된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그 진실된 바를 그 때 그 때 마다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일이든지 갑자기 이루어지기보다는 조그마하고 미세한 것이 계속 누적된 연후에야 그 결과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일상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 하나가 모여 그에 따르는 결과를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상천국건설'은 인간의 현실 세계와 동떨어진 곳에서, 또는 인간의 현실적인 삶과 무관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며, 그렇기 때문에 '지상천국건설'의 실현 방법은 지금, 여기에서 마음이 어떻게 쓰여지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

25) 教法 제3장 15절.



#### IV. '地上天國建設'에 나타나는 宗教的 特性

'地上天國建設'에 나타나는 종교적인 특징은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비교할 때 잘 나타난다. 주지하고 있듯이 기독교는 신 중심적인 세계관을 통해서 인간이 신에 종속되어 있음을 분명히 한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 자신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신의 의지에 달려 있을 뿐이다. 즉, "신의 뜻이 신의계율이나 도덕을 통하여 보존되는 것으로 인식되는 사회에서는 도움을 구하는 기도나 찬양하는 예배, 혹은 계절적인 축제 등 제의적인 표현이 그 계율이나 도덕과 밀접하게 결합되고 있다. 그러므로 각 개인의 행위가 지니는 가치는 족장, 선지자, 혹은 한 공동체의 창시자 등에게서 표현된 어떤 범례와의 관계에서만 비로소 측정된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예수 마호메트 등의 생애는 신의 뜻과 '자기백성'을 위한 목적의 참된 표현이기 때문에 그러한 범례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동체에서는 신의 선을 최선을 다하여 모방하고 신의 명령에 따라서 사는 것이 윤리적인 것이다."<sup>26)</sup> 이러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이상세계의 실현은 인간 자신의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에 의하여 야기된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독교적인 신 중심적인 세계관에서 인간의 자유 의지에 의한 자율적인 행위가 무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지상천국건설'에 나타나는 양태를 보면, 이러한 이상세계의 실현은 철저하게 인간의 노력과 의지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이상세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지 인간의 현실세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신명계를 하나의 세계로 포함시킨다. 즉, 「典經」 "상제께서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

26) 스트렝, 정진홍 역, 종교학입문, 대한기독교서회, 1975, pp. 240 - 241.

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 이것이 곧 삼계공사(三界公事)이니라'고 김형렬에게 말씀하시고 그 중의 명부공사(冥府公事)의 일부를 착수하셨도다”<sup>27)</sup> 라고 하여 인간계 보다 오히려 신명계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단지 가시적인 세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세계라고 표현 할 수 밖에 없는 또 다른 세계에 포함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문제는 단순히 야기된 사건의 연유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따른 원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상제께서도 그러한 혼란에 대해, “삼계가 착란하는 까닭은 명부의 착란에 있으므로 명부에서의 상극도수를 뜯어고치셨도다. 이로써 비겁에 쌓인 신명과 참생이 서로 상생하게 되었나니 대세가 돌려 잡히리라”<sup>28)</sup>고 하여, 그 혼란의 원인을 현상에 비롯된 것으로 보지 않는 관점을 나타낸다. 이처럼 이상세계를 실천시키기 위해서는 단지 인간의 현실세계에 국한된 변화가 아니라 신명계 까지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또 다른 특징적인 성격은 대부분의 서양 종교에서 이상세계를 이야기 할 때, 당연히 인간의 사후 세계를 내세운다. 그러나 ‘지상천국’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순사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후 세계에나 가능한 이상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세계를 개혁시킨다는 것은 바로 현세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사후에 이루어지는 이상세계가 아니다. “신선사상에 나타나는 현세적인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오히려 신선사상에서 보다 더 중시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현세적이라는 것은 현세를 중시한다는 것으로 인간의 삶이 영위되는 지금, 여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달리 해석하자면, 현실에서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현실에서의 윤리 규칙을 중시하는 데서도 알 수 있다. 현실에서의 윤리 규칙은 일반 사람들도 모두 지키는 것이지만, 수도자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니는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일반인들도 다 지키는 윤리규칙을 수도자가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스스로 정한 윤리

27) 公事 제1장 3절.

28) 豫示 10 절.

규칙이나 교리를 어기게 된다면, 역시 궁극적인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불교에서도 이러한 일상성을 통한 깨달음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깨침 그 자체는 매우 산문적이며 영광스럽지도 않은 사건 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암시하는 경우도 역시 비낭만적이며, 감각적인 측면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깨침은 일상생활에서 평범한 일을 통하여 체험된다. 그것은 기독교 신비사상에 관한 책들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은 특이한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당신을 붙잡거나, 당신을 때리거나, 당신에게 차 한 잔을 권하거나, 가장 평범한 말 몇 마디를 하거나, 경전이나 시집의 어떤 구절을 말해 주어 당신의 마음이 막 열리려 할 때, 당신은 그 즉시 깨침에 이르게 된다. 거기에는 사랑을 만드는 낭만도 없으며, 성령의 목소리도 없고, 성스러운 은총이 충만하지도 않으며, 어떤 종류의 찬송도 없다'<sup>29)</sup>고 하며, '만일 그의 (부처)의 충고에 따라 최고의 깨침과 니르바나를 얻게 된다면 번뇌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니르바나는 번뇌와 고통의 종말이며 궁극적인 평화이다. 더욱이 니르바나는 최고의 깨침에 다른 이름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것은 현생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며, 결코 그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닐지라도 죽음을 기다릴 필요는 없는 것이다. 영원한 평화, 그러므로 번뇌의 영원한 종말, 이제는 이것을 얻을 수 있다'<sup>30)</sup> 불교의 이러한 지적은 현실의 중시와 인간 외적인 존재에 의한 궁극적인 목적 실현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으며, 인간의 현실적인 삶의 과정에서 니르바나, 즉 궁극적인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궁극적인 이상세계의 실현은 현실을 떠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침에서도, "우주대원(宇宙大元도)의 진리가 도이며, 도는 사람만이 깨달아 닦을 수 있으므로 도인으로서 본분에 알맞는 참된 말과 참된 행위를 준행해야 한다"<sup>31)</sup>고 한 것이나, "도인은 도규(道規)를 잘 지켜야 참된 신앙자가 된다"<sup>32)</sup>는 것도 역시 현실의 삶에서 규칙을 잘

29) 스테이스, 강건기와 1인 역, 신비사상, 동쪽나라, 1995, pp. 143 - 144.

30) 상계서, p. 107.

31) 대순지침, p. 23.

32) 上同.

준수함으로써 근본적인 목적을 실현시킬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상에서 언급한 점들이 모두 현세적인 윤리 규칙을 준수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이러한 윤리 규칙의 준수를 통해서 인간성의 완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실적인 윤리 규칙의 준수는 인간의 사회적인 삶의 안정을 가져오는 것이며 동시에 인간 자신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상세계의 실현은 인간 자신의 자각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외부 존재의 불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상세계를 이룬다는 것은 외부의 어떠한 존재가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 즉, 修道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는 「典經」에서도 잘 나타난다. “공우가 어느 날 상제를 찾아 뵈옵고 도통을 베풀어 주시기를 청하니라. 상제께서 이 청을 꾸짖고 가라사대, ‘각 성(姓)의 선령신이 한 명씩 천상 공정에 참여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 이제 만일 한 사람에게 도통을 베풀면 모든 선령신들이 모여 편벽됨을 힐난하리라. 그러므로 나는 사정을 볼 수 없도다. 도통은 이후 각기 닦은 바에 따라 열리리라’ 하셔도다”<sup>33)</sup>라는 언급은 궁극적인 목적인 도통이 자신이 평소에 닦은 바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자신 스스로의 노력 여부에 따라 궁극적인 목적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는 인간성을 완전히 실현함으로써 가능한 것으로 자신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인간성의 완전한 실현이란 결국 ‘지상천국건설’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인간 자신의 완성을 통하여 신명계를 포함한 전체의 세계를 이상적인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계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33) 教運 제1장 33절.

## V. 結 論

‘지상천국건설’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주된 주제는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그 실현 방법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면, 그 실마리는 개인적인 차원, 즉, 개인의 마음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사회가 건전한가 그렇지 않은가는 구성원 개개인의 마음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생각이 또 다른 문제를 간과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의 문제도 역시 개인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논자의 생각이다. 만일 구성원 개개인의 마음이 올바르지 못하다면, 건전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없고 더 나아가, 이상세계는 불가능한 것이다. 본래 동양사회에서 중시해온 것은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성숙한 인격적인 면모다. 인격의 성숙함은 인간의 모든 행위가 올바르게 실행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모든 행위의 지도적인 마음이 성숙되지 않고는 올바르고, 공정한 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종교적인 이상향을 실현시키기 위한 방법은 마음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典經」에서도, 내가 도통 줄을 대두목에게 보내리라. 도통하는 방법만 알려주면 되려니와 도통될 때에는 유 불 선들의 도통신들이 모두 모여 각자가 심신으로 닦은 바에 따라 도에 통하게 하느니라<sup>34)</sup> 라는 언급과 또, “마음을 깨끗이 가져야 복이 이르나니 남의 것을 탐내는 자는 도적의 기운이 따라 들어 복을 이루지 못하느니라<sup>35)</sup>, “마음은 성인의 바탕으로 닦고 일은 영웅의 취하여야 되느니라<sup>36)</sup>라고하여 마음의 탐욕을 없애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지녀야 현실 생활의 복을 받을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삶의 근본적인 목적을 이룰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즉, 순수한 마음이 바탕이 되어 현실적인 복록과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즉, “인간의 복록은 내가 말았으나 맡겨 줄 곳이 없어 한이로다. 이는 일심을 가진 자가 없는 까닭이라. 일심을 가진 자에게는 지

34) 教運 제1장 41절.

35) 教法 제1장 21절.

36) 教法 제1장 23절.

체없이 베풀어주리라”<sup>37)</sup>, “이제 범사에 성공이 없음은 한 마음을 가진 자가 없는 까닭이다. 한 마음 만을 가지면 안 되는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무슨 일을 대하던지 한 마음을 갖지 못한 것을 한할 것이로다. 안되리라는 생각을 품지말라”<sup>38)</sup>, “진실로 마음을 간직하기란 죽기보다 어려우니라”<sup>39)</sup>는 지적이 그것이다. 순수한 마음을 한결같이 견지한다면, 이루고자 하는 일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지상천국건설’이란 이상세계 역시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것이라 생각된다.

주지하는 것처럼, ‘지상천국건설’을 통한 ‘세계 개혁’은 인간이 현실세계에서 이루고자하는 이상향이다. 이러한 세계는, 인간의 내적인 정신세계와 외적인 물질세계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세계라고 생각한다. 물론 현실 세계는 물질적인 세계와 정신적인 세계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간이 꿈꾸는 세계는 물질과 정신,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세계로서, 부조화에서 오는 모든 문제점을 극복된 세계를 이루고자 노력한다. 대순사상에서 나타나는 이상세계는 인간 자신의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궁극적인 세계의 변화를 이루고자 한다. 그 출발은 인간의 마음이다. 인간은 자신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이 세상의 이치를 통찰하고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다. 이 깨달은 상태에서 도달한 세계, 모든 문제가 사라진 세계가 궁극적인 이상세계로 생각되었다. 이러한 세계는 무차별의 세계로서 나와 남의 구별이 없고, 모든 존재가 평등을 이루는 세계로서 원한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계다. 즉, ‘一心’을 가지고 실천 할 때에 그러한 최상의 경지에 오를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경지는 정신과 물질의 경계가 사라진 무차별의 세계며, 자연은 자연의 순리에 따르듯 인간은 인간에 내재한 자연의 도를 실천함으로써,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이상적인 경지를 도출해 낼 수가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지상천국’인 이상향이라고 생각한다.

---

37) 教法 제2장 4절.

38) 教法 제2장 5절.

39) 教法 제2장 6절.

【참고문헌】

전경

대순지침

김하태, 동서 철학의 만남, 종로서적, 1985.

마루야마 도시야끼, 박희준 역, 氣란 무엇인가, 정신세계사, 1989.

방건웅, 신과학이 세상을 바꾼다, 정신세계사, 1997.

김지하 외, 미륵사상과 민중사상, 한진출판사, 1988.

황선명 외, 한국근대 민중 종교 사상, 학민사, 1983.

윤사순, 동양사상과 한국사상, 을유문화사, 1989.

우종모 외, 산업사회와 윤리, 문정사, 1993

라다크리슈난, 라주 편저, 곽철 역, 인간이란 무엇인가?, 동문출판사, 1979.

최재목, “동양철학에 있어서 철학과 종교-儒敎를 중심으로-”, 『철학연구』, 제52집, 대한철학회, 1994.

윌터 T. 스테이스, 강건기의 1인 역, 신비사상, 동쪽나라, 1995.

김성환, 도학 도가 도교, 그 화해의 가능성, 도교학연구 16집.

張立文, 『道學與中國文化』, 人民出版社, 1996년.

胡孚琛·呂錫琛, 『道學通論-道家·道教·仙學』, 社會科學文獻出版社, 1999년.

김백현, 「현대 한국도가의 연구과제」, 『도가철학』 참간호, 1999년.

湯一介, 「道家與魏晉玄學」, 『한국도교사상연구총서Ⅸ-老莊思想과 東洋文化』, 아세아문화사, 1995년.